

디지털인문학과 퀴어 연구

전성규*

1. 퀴어 DH와 문화연구
2. 퀴어문학과 내장적 데이터(Visceral Data), 도망자적 지식의 가능성
3.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퀴어와 디지털 인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살피고 교차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퀴어와 디지털 인문학과의 만남은 종종 데이터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것, 비가시적이고 비명시적인 것, 그래서 버려지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과 양적 방법론의 결합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 퀴어 DH 연구는 데이터를 정량적,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려는 통상적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표준성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경계에 있는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억압적 환경과 통치 공간을 균열할 수 있는 “도망자적” 데이터를 만들 가능성을 내포한다.

퀴어 DH는, 켄트 K. 창 의 주장과 같이, 문화분석(cultural analytics)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퀴어를 개체화하지 않으면서 기억 저장소가 함축하고 있는 구조와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퀴어를 역사화하고 계보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 아

* 가천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니라 퀴어 문화를 중심에 놓고 계산 가능하며 효과적인 변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퀴어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이론적 자원이 요청된다. 또한 데이터를 보는 관점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문화 분석에서 데이터는 확정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개인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 역시 지속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퀴어 문학의 시공간을 탐구하는 일은 특정 사회와 현재적 시점에서 가능한 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일이다. 퀴어문학이 담아내는 일상적 공간성은 저항 운동의 관점에서 사회적 운동감과 구별된다. 퀴어 주체들은 현재의 억압적 조건들을 체화하면서 움직임의 '일상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퀴어 문학에 기입된 '눈치보기'는 그 자체로 퀴어 주체의 삶의 궤적이며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또 공간의 성격에 따라 가변하는 퀴어 정체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다양한 퀴어 소설을 대상으로 청소년 퀴어에서 성인 퀴어가 되어가는 과정을 공간성의 변화와 함께 탐색하였다. 퀴어의 몸이 공간 안에 위치할 때 몸과 공간은 상호 변화하며 그것이 데이터로 구조화될 때 퀴어가 창안하는 일상성을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퀴어 DH, 퀴어 문화분석 방법론(퀴어 CA), 내장적 데이터, 도망자적 지식, 퀴어 문학의 아카이브 가능성, 일상성, 눈치보기, 공간, 몸, 자아 추적)

1. 퀴어 DH와 문화연구

이 글은 퀴어와 디지털인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살피고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퀴어라고 함은 존재가 자신이

속한 시공간적 맥락을 인식하며 경험하는 억압과 불화, 그럼에도 세계 안에 속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의 방식을 창안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정 과정은 개인, 집단, 사회적 층위에서 시공간성을 재인식하는 적극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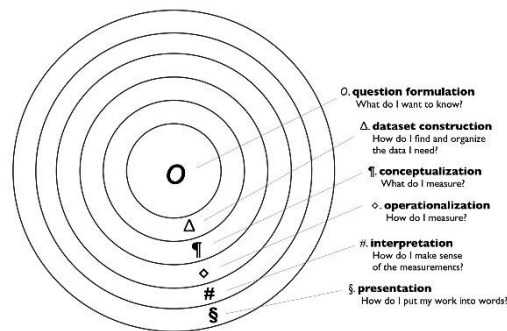
데이터 과학이 내포하고 있는 정량적 접근 방식은 무엇이 데이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별과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혼란스러운 요소들, 비가시적이고 비명시적인 것들, 모호하며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요소들은 종종 데이터화하기 어렵다고 간주된다. 퀴어성은 고정된 범주와 불화하면서 이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질은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와 갈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퀴어와 디지털 인문학의 교차는 기존의 데이터 과학으로 하여금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할 수 있다. 퀴어 또한 데이터 과학을 수용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다층성과 복잡성을 새로운 형식으로 증폭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내외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들은 문학 및 문화와 관련한 역사적, 현재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방법론을 창안하고 그 효용성을 입증해 오고 있다. 퀴어와 DH에 대한 해외 연구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켄트 K. 창 의 「문화분석에서의 퀴어 간극(The Queer Gap in Cultural Analytics)」¹⁾이란 글은 사회적 차별, 배제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퀴어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계산적 방법을 도입한 ‘시도와 방법론’의 부족을 지적하며 퀴어 문화를 계산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 즉 “퀴어 문화 분석(queer cultural analytics)”을 제시한다. 퀴어 CA는 정량적 작업과 정성적 작업 간의 대립을 암묵적으로 거부하며

1) Kent K. Chang, “The Queer Gap in Cultural Analytics”,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23,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3, pp.105-119.

들의 중간에 위치하여 퀴어 문화를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데이터, 통계, 더 넓게는 범주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술이 퀴어의 주변화와 억압에 사용되었거나 연관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기술의 범주화 자체가 대상을 본질적으로 축소하여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주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새로운 인식을 위해서는 수행적 의미에서 새로운 범주화는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데이터 과학은 패턴을 분류하는 데 관여한다. 이것은 범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지만 편향화된 알고리즘은 소수자 집단을 시스템적으로 배제하거나 비가시화하며 복잡성과 다양성이 단순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할 때 퀴어 CA는 알고리즘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론과 텍스트, 수량화 사이의 다층적 “지적 중재(intellectual mediation)”를 위해 켄트 K. 창은 퀴어 CA가 수행되는 과정을 아래의 동심원적 구조로 설명한다.²⁾



〈그림 1〉 퀴어 CA 수행 과정(Kent K. Chang)

2) 위의 글, p.109.

이 동심원은 질문 설정, 데이터셋 구성, 개념화, 조작화, 해석, 발표 총 여섯 개의 원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각 단계들이 숫자로 표시되지 않고 임의의 상징기호 표시되어 있다. 랜덤 심볼과 동심원적 구조로 연구 과정을 설계한 이유는 “퀴어 CA의 연구과정은 본질적으로 반복적”이며 “절대로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퀴어 CA뿐 아니라 CA 연구 자체가 갖는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어떤 단계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나중 단계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 각 과정은 상호 보완적이며 앞뒤의 단계를 서로를 포함하고 있고 긴밀히 연결된다.

동심원의 중심에 있는 질문형성은 퀴어 CA를 시작하는 지적 충동이다. 질문형성 단계는 정량적 증거가 제공하는 해석적 가능성을 활용해야 하는 퀴어 문화와 관련된 질문이 무엇인지 묻는 최초의 과정이자 CA 연구를 수행해 나가면서 정량적 증거들에 대한 정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점으로 역할한다. 데이터 셋은 개념화(conceptualization)와 조작화(operationalization)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각각 ‘무엇’을 셀 것인가, ‘어떻게’ 셀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개념화 과정에 있어 계산 가능한 대상을 발견하는 일은 데이터 중심이 아니라 퀴어 문화를 중심에 놓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퀴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이론적 자원이 요청되며 개념화의 과정과 그것에 대한 정량화 방법은 결국 퀴어에 대한 집단적 미적 경험을 탐구하는 것으로 방향지워진다. 켄트 K. 창은 퀴어와 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교차는 “퀴어 감수성에 대한 인식론적 탐구”를 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스카 와일드에서 이디나 멘젤에 이르는 감수성의 창조자들은 종종 “동일시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들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퀴어성을 깨닫고 ‘나’에서 ‘우리’가 된다. ... 다시 말해 퀴어성의 존재론에 머무르기 보다는 퀴어 감수성의 인식론을 탐구하는 것이 퀴어 CA의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 퀴어는 범주(category)도 아니고 반(反)정체성 구조도 아니다. 대신 이는 공유된 문화와 그 역사 및 기억의 공명을 의미한다. 이는 퀴어 주체성에서 퀴어 문화적 감수성으로 미묘한 전환을 포함한다.³⁾

퀴어를 ‘집단적’ 미적 경험으로서 연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문화적, 생활적, 미학적 패턴을 발견하는 작업과 불가분하다. 하지만 패턴은 때에 따라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감시할 수 있으며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퀴어 문화의 감수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이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퀴어 CA, 퀴어 DH 연구가 유동성, 비고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문화 분석에서 확정되고 고정된 데이터, 옳은 분석과 틀린 분석은 통용되기 어렵다. 연구자가 자신의 질문을 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개념화와 조작화를 통해 만든 데이터셋이 얼마나 정합적인가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연구자, 연구의 대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호 변화하므로 어떤 특정 시간에 생산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데이터는 고정된 것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것이며 인간과 문화에 대한 ‘지금’의 이해와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

2023년 미네소타대학출판사에서 간행된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23*에는 앞서 언급한 퀴어와 DH의 간극에 대해 논의한 켄트 창 의 글 외에도 토니아 서덜랜드(Tonia Sutherland), 마리카 시포르(Marika Cifor) 등이 작성한 「페미니스트 데이터 매니페스토-NO」를 확인할 수 있다.⁴⁾ 이 선언문은 “Manifest-NO”에서처럼 “해로운 데이터 구

3) 위의 글, p.111.

4) Tonia sutherland, Marika Cifor, T.L.Cowan, Jas Rault, and Patricia Garcia, “The Feminist Data Manifest-NO: An Introduction and Four reflection”,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23*,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3,

조와 관행을 해체하는 거부 선언”의 형식을 띤다.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은 일관되게 “We refuse”로 시작하며 데이터를 착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데이터 자본주의, 그로 인해 야기되는 공동체의 취약성, 통제가 능력의 강화를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비판적 데이터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점이 노예제의 역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예제의 역사가 곧 식민주의적 수탈화 역사의 시작이며 데이터 착취구조의 시원이 된다고 판단한다. 이것의 비물질성, 통제성을 비판하면서 이들은 여성, 원주민, 흑인, 빈곤층, 비시민권자, 트랜스젠더, 장애인 및 기타 소외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성의 관계 속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삶의 통제권을 회복하고 데이터 주체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 과정에서 “모든 규모에서 데이터를 조사하는 다른 형태와 물질성을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한다.” 여기서 물질성이란 삶과 경험에서 분리된 데이터, 영구적으로 생성되고 사용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삶과 관련하며 그들이 자신의 삶과 커뮤니티를 역사화하고 그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에 역할하는 데이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데이터가 중시되고 데이터의 지속적인 재생산과 변형,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선택성 등이 중요하다.

데이터 주권의 사례로 이들이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pollution reporter 앱이다. 이 앱은 2019년 토론토 대학의 환경정의 실험실 (Environmental Justice Lab)에서 개발한 앱으로 아임지와낭 (Aamjiwnaang)이라는 원주민 영토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정유소가 위치한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설계되었

다. 플루션 리포터의 특징적인 점은 “아암지와낭 원주민 공동체가 오염 물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을 다룬 독점적인 상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아암지와낭 사람들에게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주민 공동체가 온타리오의 ‘케미컬 밸리 (Chemical Valley)’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환경부에 보고되는 관련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발생한다.

지배자들은 자신의 정보보다 피지배자, 피식민자의 기록을 더 많이 남긴다. 그런 의미에서 흑인, 원주민은 “과도하게 연구된 타자들”이다. 노출과 기록화 및 데이터화의 대상을 흑인과 원주민이 아닌 백인과 지배자 혹은 정부관계자로 뒤바꿈으로써 데이터 사용자는 정부 보고서에 활용되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면서 기업을 감시하고 오염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된다.⁵⁾

쿼어와 DH를 연결하는 작업은 양쪽을 재인식할 수 있는 지대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쿼어라는 개념을 통해 데이터 생산에 있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데이터 과학을 통해 쿼어를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쿼어는 대상을 측정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존재로 정의하는 관행에 대한 꾸준한 비판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것은 측정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방식의 측정 가능성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통제 주체가 되는 측정 가능성,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긴장성의 대한 탐구가 쿼어 DH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스트 데이터 선언문-NO에서 NO는 잠재성에 기반한 지속적인 거부와 저항이다. 플루션 리포터 앱이 보여주는 것은 데이터 수집 대상의 전도를 통해 감시당해 온

5) 위의 글, p.127.

대상이 감시자가 되고 감시를 해 온 주체가 감시의 대상이 됨을 보여준다. 기존의 관점에서 원주민들은 모니터링의 대상, 통치 시스템이 모니터링의 주체였다. 원주민들이 자신의 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면서 정부환경 문제 대응을 감시할 수 있도록 돕는 폴루션 리포터 앱은 데이터, 기기, 그리고 통제적 관행에 의해 훈육되는 구조에 대한 저항을 가능하게 한다. 퀴어 문화 분석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내재된 식민성과 타자화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실현되지 않은 데이터의 가능성에 다가가는 실천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한국을 비롯 동아시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퀴어 아카이브의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천페이전은 퀴어 아카이브 문제를 생각할 때 벽장으로 상징되는 퀴어가 갖는 은신성, 트라우마와 공존하거나 불화하는 다양한 상황, “외부의 역사와 주류 아카이브”가 소수적 삶의 기록을 “농단”해 온 역사 등 내외적인 층위가 복잡하게 개입되어, 말하기도, 그것을 기록화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아카이브 읽기와 구조 방식을 끌어올려, 역사성, 물질성, 다층성과 학제간의 읽기를 진행”해야 함을 주장한다.⁶⁾ 그는 주류 아카이브가 숨기고 있는 존재의 족적과 삶에 좌표를 부여하는 아카이빙에 대해 말한다. 이를 위해 스피박의 “흔적 없이 읽기(reading without a trace)”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기존의 지식체계를 유일한 실마리로 여기지 않고 지식 권력을 새로 세우거나 강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⁷⁾ 이것은 잭 헬버스탐이 스텐워드 홀의 ‘저급 이론(low theory)’ 개념을 빌려와 말한 것과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저급이론은 “우리가 헤게모니

6) 천페이전, 「퀴어 아카이브와 퀴어 역사 만들기-타이완과 한국을 중심으로-」, 『사이공간 SAI』 제3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263쪽.

7) 위의 글, 266쪽.

의 틈에 걸리지 않고, 선물가계의 유혹에도 낚이지 않을 수 있게 해줄 모든 사이(in-between)의 공간을 찾아내려 한다.” “실없는 아카이브”, 실패와 패배, 망각, 훼손, 망침, 자발적 퇴행, 무지의 계보가 그려나가는 길은 주류적 지식이 체계화되고 역사화되는 방향과 다른 방향성을 띤다.⁸⁾ 천페이전은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Queerarch(Queer + Archive)의 반아카이브 성격에 주목하면서 한 트랜스젠더(MTF)가 『Buddy』 잡지사에 기부한 스크랩북, 즉 창작, 낙서, 오랜 시간이 지나 얼룩이 지고 훼손이 된 그 책에 담긴 신체와 물건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바 있다.

퀴어 아카이빙과 퀴어 DH는 비정형적 데이터 분석을 중점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지대이다. 특히 비정형적 언어를 기계가독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체현(embodiment)의 관점이 투영된 아카이빙과 데이터 생산을 논의할 수 있는 지대가 된다. 그들의 삶을 들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그것이 “중단”과 “개입”으로 들리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흑인의 사운드를 디지털 사운드 스터디로 연구하는 앨리슨 마틴(Alison Martin)의 논의를 참조하고자 한다. 그가 기술 매체를 사용하여 하고자 하는 것은 “흑인의 삶을 듣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삶의 소리가 “청각적 방해”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삶에 대한 소리를 통해 흑인의 고통을 계산하거나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소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술을 통해 지리적으로 확장된 공간에서 대량으로 소리 데이터를 채집함으로써 “수 세기에 대한 소리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가장 광범위한 공간적 배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⁹⁾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디지털 블랙페이스를 부추

8) 잭 헬버스탐,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 허원 역, 현실문화, 2024, 17쪽.

9) Alison Martin, “A Voice Interrupts: Digital Humanities as a Tool to Hear Black Life”,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23, University of Minnesota

기고 젠트리피케이션과 소리 데이터를 결합한 연구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엘리스 마튼은 프레드 모튼(Fred Moten)의 “도망자적 지식(fugitive knowledge)”을 언급하며 기존과 다른 지식 생산 가능성을 모색한다. 대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 중인 공간의 음향 환경을 분석하고자 할 때 기본적인 소리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총성에 대해 고민한다. 총성과 범죄, 흑인성은 전형적인 연결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을 재사용하기 위해 엘리스 마튼은 총성 대신 불꽃놀이 소리를 채집하여 알고리즘을 활용할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범죄와 흑인성이 갖는 소리적 이미지의 실제적 가능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소리를 채집하기 위해 그와 같은 폭력을 탐색하지 않는 방식이다.

사실 불꽃놀이를 가지고 총성을 학습한다고 할 때 데이터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주변의 불꽃놀이 축제가 벌어진 장소를 기계는 총성이 일어난 장소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것은 정확성을 중심에 두는 데이터 분석 체계에서는 결합이 있는 데이터이지만 동시에 데이터를 정량적,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려는 통상적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정확성이나 표준성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경계에 있는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억압적 환경과 통치의 공간을 균열할 수 있는 “도망자적” 소리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이 이와 같은 의도와 주의를 가지고 사용될 때 새로운 지식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을 품게 된다. 도망자적 데이터에 대한 모색은 그것이 불잡하지 않아야 한다는 특성상 고도로 가변적인 대상에 대한 연구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몸에 대한 연구일 필요가 있다. 명사로서 몸이 아닌

변화과정에 있는 동사로서의 몸에 대한 지식 생산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슈나이더가 말한 “내장적 문화 분석(visceral culture analysis)”이란 개념이 참조될 수 있다. “내장적(visceral)”이란 용어는 “시각 중심의 시각화 전략을 거부하고 데이터와 정보를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실감나게 만드는 장치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슈나이더는 이를 무용과 관련지어 체험의 물질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설명한다.¹⁰⁾ 몸은 그 자체로 형성 과정에 놓인 감각의 주체이다. 몸은 감지하고 반응하는 존재이며 때에 따라서는 착각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제도화된 지식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도망자적 감각의 저장소이다. 감각적이고 체험된 몸을 경유한 지식 생산은 몸에 새겨진 힘의 흔적들, 대응의 몸짓들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지식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컴퓨터의 이미지 분석 능력이 급속도로 향상됨에 따라 몸은 더욱 시각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몸의 복잡성과 몸이 갖는 두께는 오히려 납작해진다. 몸은 지식을 문화적으로 배열된 형태로 드러내고 이데올로기 효과를 물질화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몸은 현재적 공간과 관계 맺기도 하지만 그 몸을 가진 자가 속한 가정이나 사회의 문화적 유산을 축적하고 현재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재배열하며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몸에 대한 지식은 종종 학문적 맥락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몸에서 태어난 지식이 몸이라는 미디어에서 추출되어 독자적으로 가시화되는 사례도 많다. 공연분야에서 수행되는 디지털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모션 뱅크(motion bank)는 무용가들이 자신의 신체적 실천을

10) Harmony Bench and Kate Elswit, “The Body is Not (Only) a Metaphor: Rethinking Embodiment in DH”,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23*,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3, p.94.

이해하고 기록하기 위해 디지털 악보를 제작한 후 주석 작업과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연자들의 가변적인 움직임 특성, 악보의 각 섹션에서 머문 시간, 그리고 여러 무용수들이 어느 지점에서 해석이 겹쳤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¹¹⁾ 각각의 무용수가 구현하는 춤은 개인이 지닌 문화적 유산의 산물이자 공연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적 즉흥성이 반영된 산물이다. 동일한 역할이라고 해도 무용수가 다르면 그 무용수가 지닌 신체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동일한 무용수가 같은 역할을 반복하더라도 공연장의 현장성에 따라 디지털 악보는 다르게 제작될 수 있다.

몸은 과정에 놓여 있다. 신체의 구성과 능력은 생물학적 수준에서나 사회적 수준에서 매일같이 변화한다. 그렇기에 몸을 매개로 한 지식은 고정될 수 없다. 철학자이자 무용가인 에린 매닝(Erin Manning)은 “몸(the body)이라는 표현이 생성의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잘못된 약칭이며 따라서 몸을 짧은 수명의 사건(short-lived event)라고 이해해야 한다”¹²⁾고 주장한다. 이는 몸을 명사와 같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한히 변형되고 생성되는 동사(Verb)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데이터를 통해 신체성을 기록하는 것, 더 나아가 그것의 가변성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살아있는 경험을 환원주의적으로 수치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도망자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최근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문자 기반 텍스트를 넘어서 몸을 매개로 한 신체성의 경험, 역사, 표현과 긴장관계를 맺으며 그 긴장성 자체를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

11) 위의 글, p.97.

12) 위의 글, p.99.

2. 쿼어문학과 내장적 데이터(Visceral Data), 도망자적 지식의 가능성

컴퓨터가 점차 “역동적인 개인 미디어”¹³⁾로서 역할하면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삶의 흔적 대부분을 디지털 미디어에 남긴다. 미디어들은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그 흔적들을 대규모로 저장하는 아카이브로 작동하며, 이미 사용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상태와 취향, 행동 양식을 포착하고 축적하며 예측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은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고 초단위보다 정밀한 단위들로 개별 몸의 감각과 움직임, 정동을 기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용수뿐만 아니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디지털 악보를 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축적됨으로써 개인, 사회적 차원에서 의 모션 뱅크 또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의 몸은 디지털미디어를 재매개하는 몸으로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면서 촉발된 어포던스가 풍부하게 개입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신체를 감지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감시, 재현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몸의 데이터가 어떻게 생산되고 누구에 의해 요청되며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를 묻는 일은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감시적 트래킹이 강화되기 쉬운 환경에서 트래킹 자체를 지속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이 요청된다. 몸에 대한 기록은 그것을 소유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포착하고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동을 놓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학적 형식을 만들어내는 자원이 될 필요

13) 레프 마노비치,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이재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79쪽.

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각에 대한 분류체계를 퀴어화하는 작업이 요청되며 비정형적 움직임과 감각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생성에 대한 과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천은 익명성 속에서 감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설계, 데이터가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다중심적 체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한다.

컴퓨터가 점차로 “표현미디어”으로서 “문화기계로 재정의”¹⁴⁾되어가고 있다고 할 때 문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문학이 해 온 대안적 삶과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은 기술이 세계를 인식하고 조직하는 방식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퀴어 문학은 문자로 쓰이고 책으로 출판되는 전통적 미디어 생산의 경로와 그 주변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관습적인 질서와 형식으로 잘 잡히지 않는 움직임이며 가변적인 경로들이다. 또한 퀴어의 행위성은 컴퓨터와 같은 표현미디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어포던스와 깊이 관계한다.

레즈비언 경관은 복합적인 시공간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다른 장소가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어떤 공간이 ‘동성애자’ 공간 혹은 ‘이성애자’ 공간으로 쉽게 분류되지 않으며, (평소에는 이성애자 술집인 곳에서 이따금 열리는 레즈비언 밤샘 파티처럼) 특정한 집단이 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포착해낸다. 공간의 시간적 구성이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한 레즈비언 지리학은 섹슈얼리티와 공간에 대한 지리학 연구의 초점을 도심 지역 연구를 넘어 확장시키며, 집, 직장, 길거리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¹⁵⁾

14) 위의 책, 82쪽.

15) 캐스 브라운·개빈 브라운·제이슨 림, 『섹슈얼리티 지리학』, 김현철·시우·정규리·한

	A	B	C	D	E	F	G	H	I
	작품집	작품명	작가	장소	속성	공사적	공간 질서	지도/지향 화 가능 여부	비평가 선/영/기 감정 여
1	다행히 출 연	3학년 2반	이서영	지아철	신촌	공적	3	3	0
236	다행히 출 연	3학년 2반	이서영	3학년 2반	청진여중(경기도 안양, 가삼학교)	공적	3	1	0
237	다행히 출 연	3학년 2반	이서영	카체 신타페(작중에서는 나오지 않은 장소: 총대역 5번 줄에서 총대역까지 직선, 총대 청문로 보고 오른쪽 주자장 밑구 근처에 있었다. 1999년에 생겼고 아반폴소가 아니지만 신타페역아반폴이 장이었 던 장소로 2000년대 초반까지 레즈바어로 유명했 다. 또한 총로 나폴성가 근처 카피빈이 게이빈이라 고 불렀던 것처럼 현대대역 뒤의 신촌공밀원(신 임말 '신공') 레즈천국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다. 그들 쯤 신공은 신타페성아반폴의 마지막이자 집결지였 다. 줄자 입니(네트워크)의 레즈소울 오모르칸인 커뮤니티(연대)	신촌	공적	1	3	0
238	다행히 출 연	3학년 2반	이서영	세이클럽의 한 이반 카체	세이클럽은 온라인 웹 커뮤니티(연예발에 팬 계미반들이 유난히 많았다. 버디버디와 함께 장소년 일발 행위기 빈번하게 목격했던 온라인 커뮤니티. 아직 검증 못한 정보)	사적	1	1	0
239	다행히 출 연	3학년 2반	이서영	신촌 공밀 근처로 추정	진천여중(경기도 안양, 가삼학교)	사적	1	2	0
240	다행히 출 연	3학년 2반	이서영	3학년 2반	청진여중(경기도 안양, 가삼학교)	공적	3	3	0
241	다행히 출 연	3학년 2반	이서영	신촌 공밀	두번째 집모	사적	1	3	0

〈그림 2〉 공간적 성격과 퀴어적 실천 관계를 규명하는 데이터 셋

필자는 2023년 2학기 디지털인문학 관련 강의에서 퀴어 소설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공간적 성격과 퀴어적 실천 관계를 규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¹⁶⁾ 위에 제시된 데이터셋은 해당 수업에서 학생들이 작

16) 해당강의는 2023년 2학기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개설된 대중서사론이다. 참여한 학생들의 면면과 조별 프로젝트 과정은 http://www.klbksk.com/wiki/index.php/한국_퀴어_문학의_장소_공간_지리_멀리서_읽기_프로젝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대상이 된 텍스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작가	작품명	작품집	출판사	발간연도
김멜라	〈링고링〉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김멜라	〈나뭇잎이 마르고〉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김멜라	〈저녁놀이〉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김멜라	〈제 꿈 꾸세요〉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김병운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민음사	2020
김봉곤	〈나의 여름 사람에게〉	『시절과 기분』	창비	2020
김봉곤	〈데이 포 나이트〉	『시절과 기분』	창비	2020
김봉곤	〈시절과 기분〉	『시절과 기분』	창비	2020
김세희	『항구의 사랑』		민음사	2019
김청굴	『재와 물거품』		안전가옥	2021
김초엽	『브레모사』		현대문학	2021
김 현	〈천사는 좋은 날씨와 함께 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지』	돌베개	2021
김화진	〈정체기〉	『나주에 대하여』	문학동네	2022
김화진	〈새 이야기〉	『나주에 대하여』	문학동네	2022
김화진	〈쉬운 마음〉	『나주에 대하여』	문학동네	2022
김화진	〈꿈과 요리〉	『나주에 대하여』	문학동네	2022
박상영	『1차원이 되고 싶어』		창비	2019
박상영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문학동네	2018

품을 읽어내려가며 공간 관련 속성 정보와 연결되는 문장을 채집하고 문맥에 따라 해당 속성값을 채워간 결과물의 일부이다. 이 작업은 캐스 브라운 등이 언급한 “공간의 시간적 구성”과 맞닿아 있다. 위의 인용에서 연구자들은 쿼어적 경관이 복잡한 이유 중의 하나로 “공간의 시간적 구성”을 지적한다. 공간의 시간적 구성은 특정한 공간의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그 공간을 점유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위의 데이터 셋에서 핵심적으로 설정한 속성은 ‘공간질서’, ‘지도시각

박상영	〈중국산 모조비아그라와 제제 어디에도 고이지 못하는 소변에 대한 짧은 농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문학동네	2018
박상영	〈믿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문학동네	2022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사랑법』	창비	2019
박상영	〈동경 너머 하와이〉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20』	북큐브네트웍스	2020
박선우	〈밤의 물고기들〉	『우리는 같은 곳에서』	자음과모음	2018
박선우	〈햇빛 기다리기〉	『햇빛 기다리기』	문학동네	2022
손원평	『아몬드』		창비	2017
오종길	〈뒤로 하고 안아줘〉	『뒤로하고 안아줘』	디자인이음	2021
오종길	〈해피투게더〉	『뒤로하고 안아줘』	디자인이음	2021
오종길	〈진실도 기쁘길 원하는〉	『뒤로하고 안아줘』	디자인이음	2021
오종길	〈꽃사과 에메랄드 빛 스웨터〉	『뒤로하고 안아줘』	디자인이음	2021
이서영	〈3학년 2반〉	『다행히 졸업』	창비	2016
한강	〈에우로파〉	『노랑무늬 영원』	문학과지성사	2014
황정은	〈디디의 우산〉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화 가능 여부’, ‘퀴어적 실천/행위/감정 여부’이다. 텍스트 안에서 등장한 장소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종의 앞서 말한 조작화(operationalization)에 해당하는 속성값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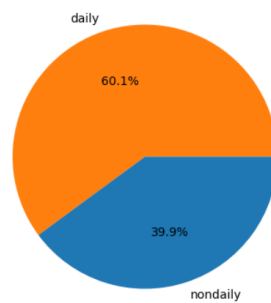
‘공간질서’의 경우 이성애 중심적 규범성을 포함하여 정상성이 강하게 지배하는 공간의 경우 3, 중립적 공간의 경우 2, 퀴어친화적 공간의 경우 1로 분류하였다. ‘지도시각화 가능 여부’는 현실에 실제 존재하여 위도와 경도로 좌표 특정이 가능한 구체적 공간의 경우 3, 물리적 공간이긴 하나 불명확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애초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 즉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SF 안에서 창안된 공간일 경우 1로 분류하였다. 또한 소설 속 장소가 퀴어적 실천 및 행위, 감정이 촉발되며 수행되는 공간인지의 여부를 O, X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퀴어 인물들 간의 신체적 접촉이나 친밀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공간일 경우 O로 표시하고 퀴어 관계를 감추거나 억제하는 공간일 경우 X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작업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퀴어 주체가 퀴어적 실천을 통해 특정한 공간의 성격을 바꿔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집이라든가 학교와 같이 정상적 질서에 강하게 편입된 공간이나 일상적인 공간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를 배경으로 십대 이반 문화를 잘 그려내고 있는 이서영의 〈3학년 2반〉¹⁷⁾과 같은 경우 카페 산타페라는 카페가 등장한다. 신촌에 위치했던 이 카페는 평소에는 흔한 일반적인 카페로 운영되었으나 특정한 날에는 십대 여성 이반들의 모임 장소로 역할하였다. 이반 모임이 열리는 날이면 평범한 상업공간에서 퀴어 공동체의 집결지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데이터 셋에서 카페 산타페가 갖는 공간의 성격은 이반의 집결지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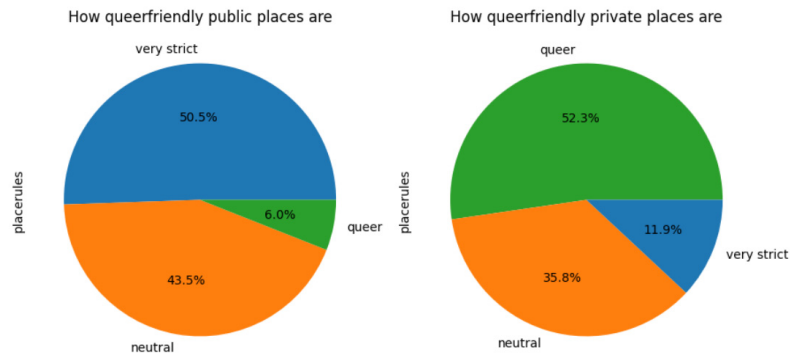
17) 이서영, 〈3학년 2반〉, 『다행히 졸업』, 창비, 2016.

할 때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폐쇄성을 띤다는 점에서 사적으로 분류된다. 이때 공간질서는 이성애 중심적 규범성과 상반되는 퀴어친화적인 특성을 띠므로 1로 분류된다. 지도시각화 가능 여부는 실제 존재했던 곳이며 특정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어 3으로 분류된다. 퀴어적 실천/행위/감정 여부는 0로 분류된다. 반면에 교회와 같은 장소는 정상성이 강하게 지배하는 공적 공간이므로 공간질서 3으로, 퀴어적 실천/행위/감정 여부는 X로 분류된다.

학교는 퀴어 공간의 복잡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선 데이터 셋에서 학교의 공간질서가 2(중립적 공간)와 3(정상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점은 공간이 갖는 복합적 성격을 드러낸다. 또한 퀴어적 실천/행위/감정 여부는 모두 0로 분류되어 퀴어적 정동과 학교라는 공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퀴어 소셜 안에서 일상, 비일상 공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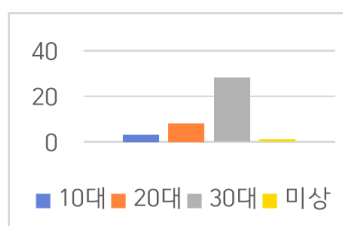
〈그림 4〉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퀴어 친화성 정도 비교

학생들은 공간질서와 퀴어 친화적 행위 가능성을 분류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퀴어 소설에서는 카페 산타페와 같이 비 일상적인 공간도 등장하지만 대부분 학교, 학원, 회사 등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이 주를 이룬다. 공간을 공적/사적으로 분류한 뒤 공간 질서를 변수로 삼아 작성한 원그래프에서는 공적 공간일수록 정상성이 강하게 지배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대학 동아리방, 고속버스 터미널, 카페와 같이 중립적인 성격을 띠는 공간 역시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적 공간일수록 퀴어친화적인 공간일 확률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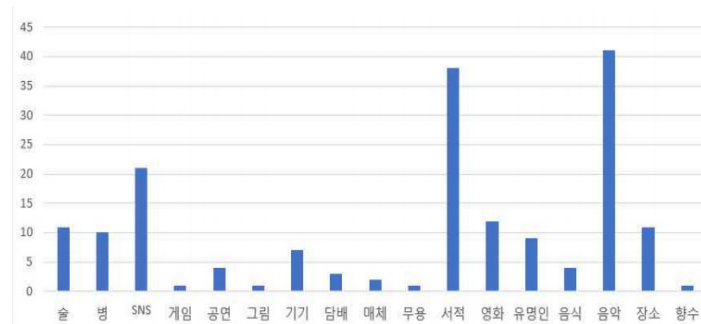
십대 이반은 대부분 학생이며 학교는 이들의 주무대가 된다. 이반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은 온라인이지만 학교는 암암리에 퀴어적 관계가 물리적 공간으로 연장되는 접점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는 규율과 감시가 작동하는 제도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퀴어적 관계의 가능성과 제도적 억압이 공존하는 이중적 특성, 즉 양립불가능성이 공간의 긴장성을 증폭시킨다. 의무 교육 아래서 학교는 특정 지역의 학령 인

구를 일괄 수용하므로 사용자의 다양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만큼 규율과 통제의 강도 또한 높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독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구석진 공간들에서 은밀하고 암묵적인 퀴어적 실천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소각장과 같은 구석에 위치한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퀴어적 행위성이 발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에 속해있는 소각장은 퀴어친화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성애적 규범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공간 또한 아닌 것이다.

한국의 퀴어 소설에서 학교는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공간이다. 특히 퀴어소설에서는 30대 화자를 내세워 2000년대 초중반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는 회고적 서술 구조가 자주 사용되며 이 안에서 학교를 비롯해 학원 등 입시 공간, 사교육 공간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대표적으로 박상영의 『1차원이 되고 싶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어떤 한 인물이 퀴어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 중고등학교 시절의 자아와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퀴어정체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성장해 온 환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것이다. 부모, 친구와의 관계, 성적 경험 등의 다양한 수준이 정체성을 형성하므로 퀴어정체성은 그와 같은 잠재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퀴어 소설 속 연령대



〈그림 6〉 퀴어 소셜 속 취향 자원

학생들은 회고적 서술 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퀴어 소셜 속 인물의 연령대를 분석하였다. 30대 화자가 고등학생 시절이나 스무살 상경 이후의 경험을 회고하는 경우 서사의 시점을 기준으로 인물의 연령대를 계산하여 속성값에 기입한 후 통계적으로 정리하였다.¹⁸⁾ 2010년대

18)

	A	B	C	D	E	F	G	H	I	J	K
1	과거 장소	위도	경도		작품	작가	개수	정수	시점	나이	
2	이태원 게이 클럽(WHYNOT ITAEWON)	37.53458	126.9945	용산구	대도시의사 박상영		5	10	과거(연애	20대	
3	보광동	37.52684	127.0009	용산구	대도시의사 박상영		1	2	과거(연애	20대	
4	보광동 김영우 옥탑방	37.52687	127.0009	용산구	아는 사람(김병문		2	4	과거	미확인	
5	해방촌	37.54582	126.9853	용산구	대도시의사 박상영		1	2	과거(연애	20대	
6	남산타워	37.5511	126.9883	용산구	데이포나이 김봉근		1	2	과거	20대 초중반	
7	이태원 게이 클럽(출인원)	37.53348	126.9963	용산구	아는 사람(김병문		1	2	과거	미확인	
8	철우의 집	37.52751	127.003	용산구	민음에대하 박상영		3	6	8년전	미확인(20대 추정)	
9	이자가야	37.53392	126.99	용산구	민음에대하 박상영		2	4	2년전	미확인	

〈그림 7〉 과거, 회상 대상

	A	B	C	D	E	F	G	H	I	J
1	현재 장소	위도	경도		작품	작가	개수	정수	시점	나이
2	이태원	37.53851	126.9925	용산구	동경너머하 박상영		1	2	현재	30대 초반
3	소월길	37.54704	126.9812	용산구	뒤로하고인 오종길		1	2	현재	29
4	해방촌	37.54518	126.9854	용산구	뒤로하고인 오종길		1	2	현재	29
5	서율역/선'	37.55595	126.9723	용산구	우리 시대(박선우		2	4	현재	37
6	이자가야	37.53392	126.99	용산구	민음에대하 박상영		1	6	현재	미확인
7	은행 밖	37.53431	126.9946	용산구	민음에대하 박상영		1	6	현재	미확인
8	보광동	37.52684	127.0009	용산구	민음에대하 박상영		7	14	현재	미확인

〈그림 8〉 현재, 회상 시점

중반 전후에 발표된 퀴어 소설에서 화자는 30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과거의 기억과 관계를 되짚으며 서술한다. 이것은 현재의 정체성과 삶의 양태를 정초한 계기가 바로 그 시절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은 퀴어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하며 이 시기 개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취향을 구성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탐색하고 수용하기 시작한다.

〈퀴어 소설 속 취향 자원〉의 표를 살펴보면 술이나 SNS와 같은 항목은 성인이 된 후 갖게 되는 취향이지만, 서적(팬픽, 만화, B급 문학), 인터넷 소설, 영화, 음악(대중가요) 등은 중고등학교 시절 퀴어 주체의 삶에 깊이 파고들어 정체성 형성과 감정적 동일시의 매개로 작용한다. 2000년에 발매된 가수 보아의 〈〈ID:Peace B〉〉 “난 내 세상 있죠/Peace B is my network ID/우린 달라요 갈 수 없는 세계는 없죠 … 그 속에는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가 있죠/평화로운 세계 속에서”라는 가사는 퀴어 주체가 자신과 유사한 감각, 코드, 정동을 공유하는 타인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이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문화를 통해 퀴어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퀴어적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퀴어 문학 안에서 종종 포착되는 일이다. 대중문화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서적 코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과 정체성을 투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여백들은 퀴어주체에게 자신만의 해석과 동일시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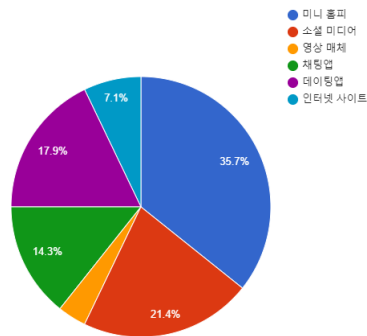
이 가사에서 드러나듯, 온라인 공간은 퀴어 주체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로 역할한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숨기거나 다른 것으로 연기해야 했던 섹슈얼리티는 익명성과 부분적 폐쇄성이 보장된 온라인 환경 속에서 비로소 가시화된다. 온라인 공간은 현실의 질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자기 정체성의 탐색과 표현이 가능해지는 대안적 장으로

역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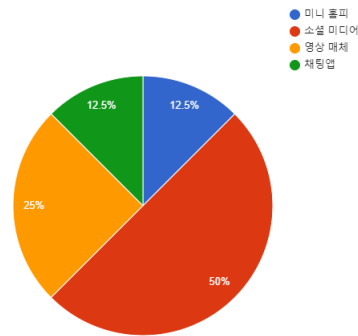
이러한 온라인 공간은 푸코가 말한 “생물학적 헤테로토피아, 위기의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es de crise)”에 가깝다. 이때 헤테로토피아는 “생물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특권화된 또는 신성시된 장소들”이다. 푸코는 이를 위해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집, 생리하는 여성들의 공간, 출산을 기다리는 여성의 공간, 생물학적 과도기에 있는 개인을 위한 공간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섹슈얼리티가 ‘처음’ 드러나는 곳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기시되던 공간이었다. 사회는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ailleurs)” “어떤 곳도 아닌 곳(nulle part)에서” 일어나기를 의도하기 때문에 금기의 구역을 만들어 이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했다.¹⁹⁾

〈공간적 성격과 퀴어적 실천 관계를 규명하는 데이터 셋〉에서 “세이클럽의 할렘헐멩 팸”과 같은 사례가 보여주듯 2000년대 초반의 십대 퀴어들은 세이클럽과 같은 온라인 채팅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들만의 강한 결속력을 가진 공간을 만들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공간 질서 1(퀴어친화적 공간), 지도시각화 가능여부 1(비물리적 공간), 퀴어적 실천/행위/감정 여부 0로 분류된다. 퀴어들은 현실에서 겪는 생물학적 위기, 성정체성의 혼란, 욕망의 문제와 사회적 배제를 온라인 공간에서 토로하고 이해받으며 자기를 재생해 나간다. 그렇기에 이곳은 소수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특권화된 장소, 신성시된 장소가 된다. 온라인은 사회와 제도, 학교가 금기시하거나 혹은 현실 세계 바깥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들을 수용하는 유일한 공간으로 역할하였다.

19)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민음사, 2021, 11-12쪽.



〈그림 9〉 퀴어 온라인 매체 사용 양상



〈그림 10〉 비퀴어 온라인 매체 사용 양상

학생들은 퀴어 소셜 속에서 퀴어 주체와 비퀴어 주체의 온라인 미디어 사용 양상을 위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퀴어 주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미디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개인화된 미니홈피 작성 플랫폼이었다. 퀴어의 경우 청소년기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과 정체성 표현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온 디지털 환경에 대한 높은 친밀함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퀴어 소셜에서 현재 퀴어 주인공과 비퀴어 주변인물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미디어를 살펴보면 퀴어 주체의 경우 소셜미디어, 채팅앱, 데이팅 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채팅앱의 경우 정보 공개도가 높고 상호작용성이 넓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퀴어와 비퀴어 간의 접촉과 교통이 자주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러한 양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퀴어주체들이 점차 자신의 퀴어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우팅, 사이버불링과 같은 위

협 또한 상존한다.

청소년 이반은 집→자신의 방→컴퓨터 앞의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온라인 공간 외에 자신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온라인 안에 미니홈피든 개인 계정 기반의 소셜 미디어이든 자신의 공간을 ‘낸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공간에서 정해진 자리를 점유하는 행위와 구별된다. 공간을 내는 행위는 애초가 이 세계에서 장소를 부여받지 못한 존재가 스스로 세계 속으로 몸을 밀어 넣으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실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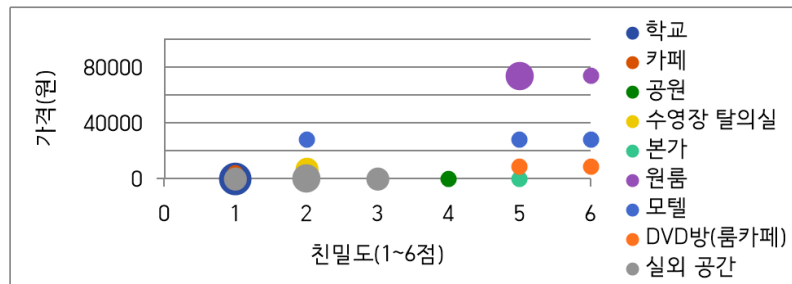
성인이 된 퀴어는 더 이상 온라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물리적이고 현실적 공간으로 직접 만들어 가고자 한다. 퀴어에게 집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가 거쳐 온 모든 집들이 중요하다. 청소년 이반으로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은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비하는 공간이 되며 그 안에서 퀴어 청소년은 자신의 방으로, 방에 놓인 컴퓨터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 시기부터 이들은 헤테로토피아가 갖는 열림과 닫힘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점점 강화한다.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경제적 자율성을 획득한 퀴어는 자신만의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파트너와 함께 살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한다. 집은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갖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누구든지 어떤 집의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을 수도 있지만 특정 구성원의 생활 공간이라는 배타적 성격이 이방인에게 닫혀있음을 느끼게끔 한다. 퀴어의 집은 이러한 이중 체계가 보다 강하게 작동한다. 이 집은 퀴어의 섹슈얼리티와 일상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수용되도록 만든 공간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이중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퀴어 커뮤니티 역시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이중체계가 분명한 헤테로토피아이다.

	A	B	C	D	E	F	G	H	I
	작품집	작품명	작가	장소	속성	공/사적	공간 질서	지도시각 화 가능 여부	퀴어적 실 천/행위/ 감정 여!
1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육실	두 사람만의 집	사적		1	2 O
14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중소 규모 콘텐츠 회사	먹점의 직장	공적		3	2 X
15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정류장	눈점이 출근길에 끼임사 고를 당함	공적	비퀴어적		2 X
16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정류장	하차 문 사이에 끼인 재 몇 미터를 끌려간 눈점이 쓰 러진 장소.	공적		3	2 X
17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길가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변 잡한 곳.	공적		3	2 X
18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정류장	눈점이 수업을 마치고 귀 가를 위해 다시 찾은 곳.	공적		3	2 X
19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택시 안	눈점이 이유 없는 폭력을 마주하는 공간.	사적		3	2 X
20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집	두 사람만의 집	사적		1	2 X
21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화장실	두 사람만의 집	사적		1	2 X
22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부엌	두 사람만의 집	사적		1	2 O
23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부엌	두 사람만의 집	사적		1	2 X
24	제 꿈 꾸 세요	저녁놀	김멜라	중소 규모 콘텐츠 회사	먹점의 직장	공적		3	2 X

〈그림 11〉 퀴어적 공간으로서 집의 속성값

김멜라의 〈저녁놀〉에서 눈점과 먹점은 둘만의 공간을 마련한다. 〈저녁놀〉은 이성애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관점을 상징하는 성인용품 딜도의 시점으로 레즈비언 커플의 ‘생활’을 그려낸다.²⁰⁾ 이 집의 공간을 위와 같이 육실, 화장실, 부엌 등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다. 사적이며 퀴어친화적인 공간인 퀴어의 집에서 퀴어적 실천, 행위, 감정 여부가 변별력 있는 지표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둘만의 집에서 함께 밥을 지어 먹고 대화하며 싸우고 화해하고 섹스한다. 미묘한 감정의 교류, 함께 살기, 함께 하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의 관계성과 이를 통해 재구성되는 공간성을 잘 그려내고 있다.

20) 김멜라, 〈저녁놀〉, 『제꿈꾸세요』, 문학동네, 2022.



〈그림 12〉 퀴어의 공간 점유에 지출하는 비용

학생들은 퀴어가 파트너와 함께 있는 공간을 유형화하고 각 공간을 활용하거나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친밀도의 기수준에 따라 1점에서 6점까지 나누어 정량화하였다. 이 점수는 퀴어 소셜 내 표현을 기반으로 감정 발현과 신체적 접촉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후 친밀도 점수를 기준으로 관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유형화한 후 2020년대 초중반 서울의 물가를 기준으로 해당 장소를 (일시적으로) 점유할 때 드는 평균 비용을 산출한 후 차트를 만들었다.²¹⁾

21) 〈표 1〉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표현으로 친밀도를 측정

1점	감정어/감각어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표현됨(상대방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발단 단계에서의 교류)
2점	상대방을 떠올리며 신체적 접촉이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어휘가 등장함
3점	'손을 잡다', '무릎을 베고 눕다', '안다/포옹하다'
4점	'입 맞추다', '키스하다'
5점	'발가벗다', '몸을 만지다'
6점	'동거하다', '성관계하다'

위에서와 같이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표현으로 친밀도를 측정한 다음 관련행위가 어느 장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조사한 후 지금의 시점에서 장소를 일시 점유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거주 공간의 확보에 있어 경제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퀴어 주체는 파트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함으로써 관계를 장소화하고자 한다. <저녁놀>에서는 눈점이 버스끼임 사고를 당해 먹점이 경제를 책임지게 된다. “급여는 그대로인데 업무량은 나날이 늘어갔고 허리 디스크와 만성 위장 장애를 달고 사”는 먹점이며 경제적 압박 속에서 “점점 점이 되어가는” 시간과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성욕을 잊”어가는 시간은 오롯이 겹친다. 공간의 유지와 재생산은 감정적, 신체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이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퀴어의 몸이 일상의 시공간 안에 속하게 될 때 퀴어의 경관은 복잡하게 전개된다. 퀴어 정체성을 숨기거나 미약하게 드러내며 눈치를 보는 방식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퀴어적 실천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퀴어 주체가 특정 시공간에 놓인 제도와 환경, 사람들과 직접 관계하는 방식이다. 그러한 관계적 데이터는 퀴어의 몸에 기입되어 축적되며 무의식과 표정, 행동과 언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퀴어가 시공간과 맺는 관계를 소설화

〈표 2〉 장소 (일시) 점유에 따른 지출 비용 계산 방식

장소	지출 비용	비고
카페	3,937원(1회)	따뜻한 아메리카노 레귤러 사이즈 한 잔 값 평균, 중저가 브랜드 카페 기준.
수영장	7,120원(1회)	
룸카페	9,000원(하루 무제한 이용가)	DVD방을 룸카페로 대체
월세	74,116원(1일)	보증금 2,000만원 나누기 365 + 월세 60만원 나누기 30 (서울 종로구 기준 평균 월세값 55만원 + 관리비 5만원)
모텔	28,133원	하루 대실 최대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가 평균 비용

하는 작품은 그 자체로 퀴어가 퀴어링되는 과정에 대한 흔적을 보고한다.

디지털 인문학은 전반적으로 시공간적 비고정성이나 감각적 관계성에 비교적 덜 주목해 왔다. 그러나 비판적 데이터 연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아 추적(self-tracking)”²²⁾은 살아있는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살아있게 만드는 각종 환경적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살아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감각적 인식을 강화하고 신체적 과정을 보다 가시화할 수 있는 기술적·디자인적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퀴어의 몸은 구체적인 시공간과 관계하면서 일상성과 정상성의 경계를 흐린다. 동시에 퀴어는 일상성과 정상성을 포함하는 사회의 수많은 몸들과 관계하면서 지속된다. 이러한 관계성은 세대 간에 걸쳐 있으며 특정 시공간에서 상호 구성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내장적(visceral) 경험은 고정 불변한 지식이 아니라 퀴어에 관한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 관한 유동적이며 체현된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3. 결론

이 글에서는 퀴어와 디지털 인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살피고 교차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퀴어와 디지털 인문학과의 만남은 종종 데이터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것, 비가시적이고 비명시적인 것, 그래서 버려지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과 양적 방법론의 결합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 퀴어 DH 연구는 데이터를 정량적,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려는 통상적 시스템의 한계를

22) Harmony Bench et al., 앞의 글, p.100.

드러낼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표준성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경계에 있는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억압적 환경과 통치 공간을 균열할 수 있는 “도망자적” 데이터를 만들 가능성을 내포한다.

퀴어 DH는, 켄트 K. 창외의 주장과 같이, 문화분석(cultural analytics)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퀴어를 개체화하지 않으면서 기억 저장소가 함축하고 있는 구조와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퀴어를 역사화하고 계보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퀴어 문화를 중심에 놓고 계산 가능하며 효과적인 변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퀴어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이론적 자원이 요청된다. 또한 데이터를 보는 관점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문화 분석에서 데이터는 확정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개인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 역시 지속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주권성에 대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문화 데이터는 통치와 감시, 배제를 위한 데이터 생산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주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의 지속적인 재생산과 변형, 그리고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존중과 선택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를 구성하거나 계보화하는 방식에 있어 다른 접근이 요청된다. 그 계보는 “중단”과 “개입”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 계보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기존의 지식체계를 유일한 실마리로 여기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다. “실없는 아카이브”, “실패와 패배, 망각, 훼손, 망침, 자발적 퇴행, 무지의 계보”가 그려나가는 길은 주류적 지식이 체계화되고 역사화되는 방향과 다른 방향성을 띤다. 이 방향성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이와 같은 의도와 주의를 가지고 사용될 때 새로운 지식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을 품게 된다. 도망자적 데이터에 대한 모색은 다른

지식과 다른 역사를 모색하는 퀴어와 교차하여 설계될 수 있다. 몸은 그 자체로 형성 과정에 놓인 감각의 주체이다. 몸은 감지하고 반응하는 존재이며 때에 따라서는 착각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제도화된 지식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도망자적 지각의 저장소이다. 감각적이고 체현된 몸을 경유한 지식 생산은 몸에 새겨진 힘의 흔적들, 대응의 몸짓들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지식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컴퓨터가 점차로 “표현미디어”으로서 “문화기계로 재정의”되어가고 있다고 할 때 문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문학이 해 온 대안적 삶과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은 기술이 세계를 인식하고 조직하는 방식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퀴어 문학은 문자로 쓰이고 책으로 출판되는 전통적 미디어 생산의 경로와 그 주변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관습적인 질서와 형식으로 잘 잡히지 않는 움직임이며 가변적인 경로들이다. 또한 퀴어의 행위성은 컴퓨터와 같은 표현미디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어포던스와 깊이 관계한다. 퀴어 문학의 시공간을 탐구하는 일은 특정 사회와 현재적 시점에서 가능한 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일이다. 퀴어문학이 담아내는 일상적 시공간성은 저항 운동의 관점에서 사회적 운동감각과 구별된다. 퀴어 주체들은 현재의 억압적 조건들을 체화하면서 움직임의 ‘일상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퀴어 문학에 기입된 눈치보기는 그 자체로 퀴어 주체의 삶의 궤적이며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또 공간의 성격에 따라 가변하는 퀴어 정체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다양한 퀴어 소설을 대상으로 청소년 퀴어에서 성인 퀴어가 되어가는 과정을 공간성의 변화와 함께 탐색하였다. 퀴어의 몸이 공간 안에 위치할 때 몸과 공

간은 상호 변화하며 퀴어의 일상성이 창안된다. 이때의 공간은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포함한다. 퀴어 정체성 형성에 있어 디지털 공간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와 같은 공간성을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차용하여 분석하였다.

디지털 인문학은 전반적으로 시공간적 비고정성이나 감각적 관계성에 비교적 덜 주목해 왔다. 그러나 비판적 데이터 연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아 추적(self-tracking)”은 살아있는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살아있게 만드는 각종 환경적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살아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감각적 인식을 강화하고 신체적 과정을 보다 가시화할 수 있는 기술적·디자인적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퀴어 문학은 퀴어 주체가 특정 시공간에 놓인 제도와 환경, 사람과 직접 관계하는 방식을 담아내고 그과정에서 변화하는 무의식, 표정, 행동과 언어를 기입한다. 퀴어 문학은 시공간과 관계맺으며 살아가는 퀴어가 퀴어링되는 과정을 기록한 데이터의 보고로 역할할 수 있다. 퀴어 문학이 담고 있는 내장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퀴어에 관한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 관한 유동적이며 체현된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김멜라, <링고링>,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 _____, <나뭇잎이 마르고>,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 _____, <저녁놀>,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 _____, <제꿈꾸세요>,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 김병운,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민음사, 2020.
- 김봉곤, <나의 여름 사람에게>, 『시절과 기분』, 창비, 2020.
- _____, <데이 포 나이트>, 『시절과 기분』, 창비, 2020.
- _____, <시절과 기분>, 『시절과 기분』, 창비, 2020.
- 김세희, 『항구의 사랑』, 민음사, 2019.
- 김청굴, 『재와 물거품』, 안전가옥, 2021.
- 김초엽, 『프레모사』, 현대문학, 2021.
- 김 현, <천사는 좋은 날씨와 함께 온다>, 『그래서우리는 사랑을 하지』, 돌베개, 2021.
- 김화진, <정체기>, 『나주에 대하여』, 문학동네, 2022.
- _____, <새 이야기>, 『나주에 대하여』, 문학동네, 2022.
- _____, <쉬운 마음>, 『나주에 대하여』, 문학동네, 2022.
- _____, <꿈과 요리>, 『나주에 대하여』, 문학동네, 2022.
- 박상영, 『1차원이 되고 싶어』, 창비, 2019.
- _____,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문학동네, 2018.
- _____, <중국산 모조비아그라와 제제, 어디에도 고이지 못하는 소변에 대한 짧은 농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문학동네, 2018.
- _____, <믿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문학동네, 2022.
- _____,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사랑법』, 창비, 2019.
- _____, <동경 너머 하와이>,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20』, 북큐브네트웍스, 2020.

- 박선우, 〈밤의 물고기들〉, 『우리는 같은 곳에서』, 자음과모음, 2018.
- _____, 〈햇빛 기다리기〉, 『햇빛 기다리기』, 문학동네, 2022.
- 손원평, 『아몬드』, 창비, 2017.
- 오종길, 〈뒤로 하고 안아줘〉, 『뒤로하고 안아줘』, 디자인이음, 2021.
- _____, 〈해피투게더〉, 『뒤로하고 안아줘』, 디자인이음, 2021.
- _____, 〈진실도 기쁘길 원하는〉, 『뒤로하고 안아줘』, 디자인이음, 2021.
- _____, 〈꽃사과, 에메랄드 빛 스웨터〉, 『뒤로하고 안아줘』, 디자인이음, 2021.
- 이서영, 〈3학년 2반〉, 『다행히 졸업』, 창비, 2016.
- 한 강, 〈에우로파〉, 『노랑무늬 영원』, 문학과지성사, 2014.
- 황정은, 〈디디의 우산〉,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2. 2차 자료

-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민음사, 2021.
- 레프 마노비치,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이재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잭 헬버스탐,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 허원 역, 현실문화, 2024.
- 천페이전, 「퀴어 아카이브와 퀴어 역사 만들기-타이완과 한국을 중심으로-」, 『사이間 SAI』 제3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259-289쪽.
- 캐스 브라운·개빈 브라운·제이슨 림, 『섹슈얼리티 지리학』, 김현철·시우·정규리·한빛나 역, 이매진, 2018.
- Alison Martin, “A Voice Interrupts: Digital Humanities as a Tool to Hear Black Life”,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23*,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3, pp.193-201.
- Kent K. Chang, “The Queer Gap in Cultural Analytics”,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23*,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3, pp.105-119.
- Harmony Bench and Kate Elswit, “The Body is Not (Only) a Metaphor: Rethinking Embodiment in DH”,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23*,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3, pp.93-104.
- Tonia sutherlandnd, Marika Cifor, T.L.Cowan, Jas Rault, and Patricia Garcia, “The Feminist Data Manifest-NO: An Introduction and Four reflection”,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23,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3, pp.120-139.

Abstract

Digital Humanities and Queer Studies

Jeon, Seong-Kyu(Gacho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ense of distance between queerness and digital humanities, and explores the potential for their intersection. The encounter between queer studies and digital humanities is valuable in that it seeks to combine uncomfortable and confusing elements—those deemed unquantifiable, invisible, or implicit, and therefore prone to being discarded or overlooked—with quantitative methodologies. Queer DH (Digital Humanities) research has the potential to expose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systems that prioritize quantitative and objective evaluation of data. By intentionally producing data that is incomplete or situated on the margins—eschewing accuracy and standardization—queer DH may create forms of "fugitive" data that can rupture oppressive environments and regimes of control.

As Kent K. Chang argues, queer DH needs to move toward cultural analytics. Rather than objectifying queerness, it is essential to develop methodologies that historicize and genealogize queer lives by uncovering the structural patterns embedded in repositories of memory. This requires not a data-centered approach, but one that centers queer culture and identifies computable, effective variables within it. Such an approach calls for academic inquiry and theoretical resources rooted in queer studies. A shift in how we perceive data is also necessary: in cultural analytics, data is neither fixed nor finalized, but must remain subject to continual revision as individuals and societies evolve.

Exploring the spatiotemporal dimensions of queer literature is an inquiry into the bodily movements possible within particular societies and present conditions. The everyday spatiotemporality embedded in queer literature differs from the affective dynamics of traditional social resistance. Queer subjects, while

embodying the constraints of their present,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everyday motion. The act of "sensing and navigating" (nun-chi) inscribed in queer literature traces the trajectory of queer life itself, and as it changes over time and across spatial contexts, it becomes a critical resource for tracking the fluidity of queer identity.

This study analyzes a range of queer novels produced from the late 2010s to the early 2020s, tracing the spatial transitions that occur as queer youth mature into queer adults. When queer bodies are situated within space, body and space co-transform; and when this dynamic is structured into data, the everydayness imagined by queer lives can be quantitatively explored.

(Keywords: Queer Digital Humanities, Queer Cultural Analytics, Visceral Data, Fugitive Knowledge, The Archival Possibility of Queer Literature, Everydayness, Queer Space, Body, Self Tracing)

논문투고일 : 2025년 4월 4일
논문심사일 : 2025년 6월 16일
수정완료일 : 2025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5년 6월 19일